

社說

첫 단추 잘 꿰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민선 8기 첫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일단 첫 단추는 잘 꿰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최근 열린 사·도 상생위에서 40건의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이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민선7기에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2018년부터 총 4차례 위원회를 열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데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군공항 문제, 혁신도시 SRP발전소, 혁신도시발전기금 등이 해관계가 엇갈리는 현안들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늘 제자리 걸음을 걸었던 터였다. 하지만 이번 첫 상생발전위에서는 합의의 결과가 나왔다. 먼저 광주와 전남의 해묵은 갈등 현안이었던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에 나주시가 매년 50억원씩 출연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위원회는 나주시가 참석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출연 협약식도 함께 갖고 2023년부터 혁신도시 성과 공유를 위한 발전기금에 나주시가 매년 5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또한 양 시도는 신규 현안 과제로 반도체 단지를 대구·경북까지 넓혀 추진하고 전남권

의과대 설립을 전남만의 현안이 아닌 광주·전남 모두의 일이라는 인식 아래 공동 의제로 삼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결론적으로 이날 상생위는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 신규과제 11건과 광주 군공항 이전 등 현안과제 3건, 남해안 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등 추진 중 과제 26건을 공동협력과제로 발표했다. 광주·전남 상생위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새 단체장의 인식과 의식이다. 다행히 양 단체장은 “광주와 전남의 지방소멸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해법 또한 “양 지역의 초광역 협력만이 지방소멸 위기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확인했다. 물론 100% 만족할 수만은 없다. 일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현안은 다루지 못한 아쉬움도 남는다. 하지만 첫 술에 배 부르지는 않는다. 참석자들이 평가하듯 ‘과거 어느 때보다도 좋은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 시간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는 있다고 본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협의를 통해 채택한 현안과 신규과제를 이제 보다 긴밀한 논의를 통해 풀어야 할 시점이다.

현실화한 인구 절벽...강도 높은 정책 시행을

인구와 관련해서는 들려오는 소식마다 암울하다.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줄었고, 전남지역 농가인구는 지난 50년 동안 240만명이나 감소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대한민국은 쪼그라들기 시작했고, 전남지역은 농가 인구만으로도 현재의 전남 전체 인구(180만명)보다 많은 숫자가 사라졌다는 통계다. 이미 알려졌듯이 대한민국은 2019년부터 사망자가 출생아 수보다 더 많은 ‘인구데드크로스’현상이 시작됐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부터는 총인구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는 1949년 인구 집계기 시작된 이후 72년 만의 일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1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대한민국 총 인구는 5천173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9만1천명이 줄었다. 더 큰 문제는 고령 인구 비율은 심화되는 반면 유소년 인구의 생산가능인구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는 데 있다. 이번에 발표된 통계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70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41만9천명(5.1%) 늘었다. 지난해 고령인구 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6.8%로, 이는 1년 전의 16% 보다 높아졌다. 국민 6명 중 1명은 노인이라는 의미다. 이와는 반대로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꾸준히 감소세에 있다는 게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난해 생산가능인구는 3천694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4천명이 줄었다. 그 중에서 전남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농림어업총조사로 본 전남 농·어업 변화상’에 따르면 전남의 농가 인구는 1970년 267만8천명에서 2020년 28만명으로, 50년 만에 89.5%인 239만8천명이나 줄어들었다. 전남 가구 중 농가의 비중은 1970년 67.2%에서 2020년 18%로 49.2%p 감소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 꼴찌 수준의 저출산이 계속되면서 인구절벽 경고음이 진작에 울리고 있었다. 하지만 미온적인 대책에 인구 감소 속도는 더욱 가팔라졌다. 그리고 지금의 인구 정책으로는 장기적인 인구 감소 추세를 막기는 어렵다. 실패한 인구정책을 완전히 뒤집고 새판을 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에 즉각 반응해야 하는 시점이다.

검사와 대통령

했던 인물들이다. 이들은 사적인 연으로 얽혀있고, 맹목적 충성심이 강한 인사들로 분류된다. 믿을 만한 사람들은 검찰 출신뿐이라는 인식은 그 대로 보여주었다. 총무비서관실은 과거에는 당직자들이 갈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자리라서 당연히 철저한 자기관리와 역할을 길러오고 대통령 선거에 혼신을 다한 에이즈들도 자리를 못 잡았다. 그 자리에 사적인 연으로 추천된 들보잡 인사들이 내려앉았다. 지인인사, 정실인사가 되면서 더 뛰어나고 책임감 있는 정치권 인재들이 배제된 게 문제의 본질이다. 대통령비서실은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발표하기 전에 국민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한다. 국회, 정치권과의 사전 교감, 이해당사자의 설득과정도 필수적이다. 행정시정적 우수함 능글이나 수사경력 이 출중한 검사들일지라도 단기간에 습득할 수 없는 입체적인 통찰과 직감의 필요하다. 시민사회식이 사회적 책임을 해명하면서 법관제 운운해 비난을 더했다. 정당과 국회경험 혹은 언론에 익숙한 있는 행정관에게 위치한 대통령이 된 것이다. 검사와 수사관이 핵심 지지층인 셈이다. 검찰 근무 중 이력저런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그의 엄호세력이다. 비서실의 인사·예산·행정 지원을 담당하는 총무비서관실도 검찰 수사관들로 채웠다. 윤 대통령의 수석역할을

용할 수 없으니 엄선 절차를 거친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은 국정운영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니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보통 능력이 아니라 최고로 출중한 능력을 다면 평가로 인정받아야 한다. 신상의 도덕적 하자가 있어서도 안 된다. 철저한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한다. 최고의 인재도 신원조회를 통과 못해 비서실 문턱에서 눈물을 흘리며 돌아간 사람도 많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충분히 이해하고 역사를 기록한다는 소명의식이 더해지면 더 할 나위 없다. 윤대통령은 인수위 시절 대통령비서실 구성안을 보고받고 원안을 폐기하고 본인과 사적 인연이 있는 검찰식구들을 대거 포함시켰다. 뺏속까지 검찰주의자인 그는 대검찰청이 그대로 옮겨 왔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검찰출신들을 비서실 요소 요소에 배치했다. 정치적 기반이 전무하고 평생 검찰에 몸담은 그의 지지기반은 검찰이니 자연스런 수순이다. 윤대통령은 정치입문 8개월 만에 당선 됐다. 본인의 첫 선거이자, 마지막 선거에서 국가의 최고의 위치인 대통령이 된 것이다. 검사와 수사관이 핵심 지지층인 셈이다. 검찰 근무 중 이력저런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그의 엄호세력이다. 비서실의 인사·예산·행정 지원을 담당하는 총무비서관실도 검찰 수사관들로 채웠다. 윤 대통령의 수석역할을

시론



김명진 호남대학교 초빙교수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8주째 하락세다. 전 세대, 전 지역 공통이다. 대구·경북지역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 가장 큰 하락요인은 인사문제이다. 특히 대통령비서실의 사적채용과 부적절한 대응이 주된 요인으로 지적됐다.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직원, 극우 유튜브 누나, 대통령 6촌 동생, 권성동 원내대표 지인 우모씨 아들, 대통령지인 황모씨 아들, 주기한 광주시장 후보 아들 등 사적인 연 채용이 드러날 때마다 여론은 출렁거렸다. 대통령비서실은 역을 하다고 항변한다. 대통령 비서실에 공개채용이 있었다. 역대정권이 다 마찬가지였다는 것이다. 맞는 얘기다. 대통령비서실은 늘공과 어공으로 구성된다. 늘공, 늘상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이다. 각 부처에서 우수한 인력들이 대통령직에 파견된다. 어공, 어찌다 공무원은 정당 당직자, 국회보좌진, 민간 전문가들이다. 문제는 항상 어공 총원과정에서 발생한다. 자천 타천으로 지원자는 많고 다채

자치칼럼



이계양 광주주무관꿈창학교 교장, 몸자주 시민들 공동대표

나만 살겠다는 세상에서 너, 너들은 혐오와 배제의 대상일 뿐이다. 안으로는 이념, 세대, 지역, 계층, 성별, 인종, 종교, 직업 등에서 혐오와 배제의 빛을 놓으며 각자도생의 막다른 길로 돌진하고 있다. 밖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위기,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인한 물가 급등과 폭염, 가뭄, 홍수, 한파로 온 세계가 자국의 안보와 경제만을 위해 유무형의 전쟁으로 각자도생을 도모하고 있다. 답답한 마음에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들춰본다. 갓난 두 아이 엄마의 영혼을 거둬오라는 명령을 거역한 죄로 인간 세상에 내려와 세 가지 진리를 깨닫는 천사 미하일의 이야기다. 먼저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알몸의 천사 미하일을 발견한 세몬은 그냥 지나치려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신의 코트를 입혀 집으로 데려오고, 그 아내 마르타나 동자들에게 ‘정신적 순해배상’을 청구한 일, 대우조선육포조선소에서 유취한 용접공이 사방 1미터 철제 상자 속에 31일 동안 자신을 가두며 “이대로 살 순 없습니다”라고 목숨을 걸고 외치는 일 등. 곳곳에서 나 좀 살려달라고 아우성인데 한편에선 나만 살겠다고 욕박지르는 모순의 현실이 눈앞에 있다.

나만 살겠다는 세상에서 너, 너들은 혐오와 배제의 대상일 뿐이다. 안으로는 이념, 세대, 지역, 계층, 성별, 인종, 종교, 직업 등에서 혐오와 배제의 빛을 놓으며 각자도생의 막다른 길로 돌진하고 있다. 밖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위기,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인한 물가 급등과 폭염, 가뭄, 홍수, 한파로 온 세계가 자국의 안보와 경제만을 위해 유무형의 전쟁으로 각자도생을 도모하고 있다. 답답한 마음에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들춰본다. 갓난 두 아이 엄마의 영혼을 거둬오라는 명령을 거역한 죄로 인간 세상에 내려와 세 가지 진리를 깨닫는 천사 미하일의 이야기다. 먼저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알몸의 천사 미하일을 발견한 세몬은 그냥 지나치려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신의 코트를 입혀 집으로 데려오고, 그 아내 마르타나 동자들에게 ‘정신적 순해배상’을 청구한 일, 대우조선육포조선소에서 유취한 용접공이 사방 1미터 철제 상자 속에 31일 동안 자신을 가두며 “이대로 살 순 없습니다”라고 목숨을 걸고 외치는 일 등. 곳곳에서 나 좀 살려달라고 아우성인데 한편에선 나만 살겠다고 욕박지르는 모순의 현실이 눈앞에 있다.

각자도생과 연민공동체

아는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닫는다. 끝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미하일은 자신이 낳지 않은 아이들이 눈물 어린 사랑으로 돌보는 부인의 모습을 통해 놓으며 각자도생의 아간다는 걸 깨닫는다. 그리고 ‘제가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제 힘으로 스스로 보살필 수 있어서가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과 그의 아내가 사랑과 온정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잃은 그 아이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보살필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이웃 집에 사는 한 여인이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엾이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 대한 걱정과 보살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다. 이 각자도생의 시대를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연민이다. 연민은 영어로 Compassion이다. 라틴어 어원 com은 함께 하다, passion은 고통을 겪는 뜻으로 ‘고통을 함께 느낀다’는 공동체성을 내포하고 있다. 러시아어도 연민(sostradanie)이 ‘함께(со)와 고통(stradanie)의 합성어, 즉 ‘함께 고통당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나만 알고, 나만의 생존에 목을

매다 보니 고통스럽다. 또 내 고통에 매몰되다 보니 남의 고통은 안중에 없다. 고통을 나눌 수 없는 세상은 참혹하다. 내가 너로 인하여 존재하고, 나와 너로 인하여 우리라는 보이지 않는 공동체가 가능하다. 공동체는 연민이라는 끈으로 묶여 있다. 남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연민이다. 맹자는 사람의 본마음을 남의 고통을 보고 ‘차마 견딜 수 없어 어찌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이라 했다. 사단(四端) 즉, 측은지심(惻隱之心) 불쌍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인 인지단(仁之端), 수오지심(羞惡之心)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인 의지단(義之端), 사양지심(辭讓之心) 양보할 줄 아는 마음인 예지단(禮之端), 시비지심(是非之心)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인 지지단(智之端)이 그것이다. 불인인지심 즉 ‘차마 어찌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은 곧 ‘양심’이고 이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여기에 각자도생을 넘어서 살마라기 있다. 그렇다. 연민이다. 나도 너도 우리 모두 연민 공동체를 이루면 된다. 가난하고 소외되어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는 모든 ‘나, 너’들과 함께 하면 된다. 차마 어찌지 못하는 양심,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세상을 꿈꾼다.

독자투고

친환경 전기자동차, 안전하게 타자

최근 광주 상무지구에서 도심을 달리던 소형 전기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었다. 미국에서도 지난달 24일 주차장에 있던 테슬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쉽게 잡히지 않자 소방관들은 커다란 물구덩이를 만들어 차량을 빠뜨리는 방식으로 겨우 진화했다. 지금까지의 화재 대부분은 전기차에 장착한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발생했다. 위의 화재들도 다르지 않다. 전기차 하부에는 손가락만한 원통형 혹은 파우치형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겹겹이 쌓여있다. 총중량(23만대) 대비 약 0.01% 비율로 오히려 내연기관 차량보다 낮다. 하지만 전기차 화재는 내연기관차보다 피해가 심각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배터리는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 화재 진화가 쉽지 않다. 게다가 기존 차량 대비 100배에 달하는 물이 필요하다. 또 진화 과정에



서 배터리 폭발, 고압 전류 노출 등의 2차 위험도 있다. 더 까다로운 안전 규정이 요구되는 이유다. 최근 고유가 추세와 더불어 갈수록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들의 판매가 늘고 있다. 기업들은 차량 판매 이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다. 교통사고가 나거나 배터리가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신고해주고 대피 경보를 해주는 기능이 탑재되는 등 안전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이러한 안전과 관련된 기능은 법규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지연·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외부 충격 등이다. 전기차의 경우 2021년 23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등록대수(23만대) 대비 약 0.01% 비율로 오히려 내연기관 차량보다 낮다. 하지만 전기차 화재는 내연기관차보다 피해가 심각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배터리는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 화재 진화가 쉽지 않다. 게다가 기존 차량 대비 100배에 달하는 물이 필요하다. 또 진화 과정에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아침물어는 詩

물집

임미형



혼자 앓고 싶을 때마다 투명한 집으로 숨었다 작은 보자기 한 장으로 가리워지던 유년처럼 젖은 물포에 누워 여남은 날을 누에잠 잤다 이 물집 건너면 푸른 이슬 떨리는 강가에 다다를까 촛농 고인 긴 밤 비비며 소리죽여 울었다

(시집 ‘누름꽃’, 청어, 2021.)

[시의 논]

첫부임하는 날, 새 구두를 신고 차로 3시간, 내려서 십여 리 산골학교로 갔습니다. 관사에 짐을 풀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저런, 발뒤축에 큰 ‘물집’이 잡혔어요. 물은 화끈화끈 얼굴에까지 쫓아왔습니. 밤에 잠을 청했지만 피부를 텐트 삼아 들어간 물은 더 뜨거웠지요. 난 이방인으로 온 그에게 그만 화풀이를 했습니다. 에이, 기어이 짐을 파고치고 말았거든요. 쓰라려 ‘누에잠’을 잘 수밖에요. 물집은, 내 꿈의 미래가 결코 ‘푸른 이슬’이지 않을 고행임을 암시한 듯 했습니다. ‘촛농’처럼 따가운 상처에 원망을 달아 보던 때, 저도 살겠다고 세들어온 그를 내뱉을 수 없을 때, ‘비비며’ 후회의 눈물 비우던 걸 회고합니다. 오늘 그 학교 앞밭을 꺼내놓고 내 뒤꿈치를 보니, 물거품집 흔적이 아렴풋합니다. 참으로 그가 오래 머물고 있었지요. 임미형 시인은 강진에서 나, 동서문학과, 경북일보 문학대전, ‘문학공간’으로 등단했고, 시집 ‘떠나보낸 뒷모습’(2015)을 펴냈습니다. 그는 일상적인 사물에서도 경건한 신을 호명하고 의미화하는 지고의 시인입니다. <노창수·시인>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8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정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광 고 국 650-2072	광 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사 설 실 650-2006	경 영 지 원 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기 획 사 업 국 650-2079	입 무 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 울 지 사 (02) 786-9488	업 무 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